

정부기관 소식

농림수산식품부
소식



연중 상시 예찰 시스템 도입 등 AI 방역시스템 강화

농림수산식품부는 4.15일 21:00부터 약 3시간 동안 정운천 장관 주재

하에 현재 AI 발생 상황 및 방역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점검, 진단하는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정 장관을 비롯하여 제1, 제2 차관 등 농식품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 그리고 서울대 수의대 김재홍 교수, 충남대 수의대 모인필 교수 등 학계의 AI전문가가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건강 확보를 위해 지금까지 11월에서 2월까지 실시해오던 오리에 대한 혈청검사 등 AI예찰시스템을 연중 상시 가동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AI검사가 가능한 전국 9개 대학과 협력하여 전국의 오리농장에 대해 바이러스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해당 대학 및 관계 전문가와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 9개 대학 : 서울대, 건국대,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전북대, 경북대, 경상대, 전남대

아울러, AI발생지역에 내려진 이동제한 조치를 위반



하는 소규모 중개상이나 농가에 대한 현행 처벌규정(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닭, 오리, 달걀의 수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하였다. 가금류에 대한 소비심리 안정 방안으로 관련 생산자단체와 협의하여 소비자가 닭·오리고기를 먹고 AI에 감염될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배상하는 책임보험에 조기에 가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김창섭 농식품부 동물방역팀장은 농장에서 기르던 닭·오리가 AI 증상을 보일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면 고병원성으로 확인되어 가축이 살처분되더라도 시가의 100% 보상받고, 일정기간 후 가축 재입식시 필요한 자금을 저리(3%, 2년 거치 3년 상환)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축산농가에게 의심축이 발생하면 주저말고 방역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축산과학원
소식



축산과학원 연구원 소재 드라마 전파 KBS2 아침드라마 '난 네게 반했어' 21일 첫방송

농촌진흥청 연구원을 주인공으로

한 일일아침드라마 '난 네게 반했어' (연출 : 이건준, 극본 : 박지숙)가 4월 21일 첫방송됐다. 월~토요일까지 아침 9시~9시30분까지 KBS2에서 방송되는 이 드라마는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세 가족들이 서로 얽히며 벌어지는 소동과 사랑을 신선하고 경쾌한 감각으로 보여줄 예정이다.

특히, 주인공 직업이 지금까지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던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연구원이어서 더욱 눈길



을 끌고 있다.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주변에 살고 있는 박지숙 작가는 “축산과학원 앞을 지나다니면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무척 궁금했었다”며 “매일 이 앞을 지나다녔지만 이곳에서 연구원분들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몰랐다”고 말했다. 실제로 박지숙 작가는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홈페이지를 자주 보며 한 주간 연구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파악하고 있다.

실제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과 축산물이용과 연구원들을 모델로 한 이 아침드라마가 실제 연구원들의 모습을 얼마만큼 그려줄 수 있을지 관심이 되고 있다.

현재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 연구원은 안종남 과장과 이종문 연구관, 김동훈 연구관, 채현석 연구관, 정석근 연구사, 유영모 연구사, 함준상 연구사, 조수현 연구사, 김진형 연구사, 성필남 연구사, 장애라 연구사를 비롯해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다.

특히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의 김진형 연구사와 성필남 연구사는 부부연구사로 혹시 이 부부연구사가 모델이 아니냐는 오해도 많았다. 하지만 박지숙 작가는 축산과학원 연구원으로 등장하는 강

우진과 조민선은 축산물이용과에서 유가공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정석근 연구사와 육가공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성필남 연구사를 모델로 썼다고 밝혔다.

‘전원일기’나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가 농업·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난 네게 반했어’는 우리나라 축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연구원들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길 바란다.

검역원 소식



검역원도 닭고기 먹어요!

닭·오리고기 소비촉진에 동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해 방역·역학조사 및 진단업무 등으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 가운데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



정부기관 소식

자 발생으로 소비가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닭·오리 사육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4월 22일 전 직원이 삼계탕을 점심으로 나누었다. 또한, 앞으로도 매주 수요일을 『닭·오리고기 먹는 날』로 정하여 닭·오리고기 소비촉진에 앞장서 나가기로 하였다.



농촌진흥청 개혁, 인사혁신, 역량혁신부터 시작 외부로부터의 역량평가를 통한 승진심사제 도입

이수화 농촌진흥청장은 5급(행정·기술·연구·지도) 승진심사에 역량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을 4월 23일자로 개정하였다.

농촌진흥청은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심사제도를 승진서열명부와 다면평가로만 이루어지던 방식에서 벗어나, 기획능력과 인터뷰평가를 민간방식으로 외부에서 평가하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개선함에 따라 능력이 모자라도 일정 경력이 되면 승진이 가능했던 연공서열 위주의 침체한 조직문화에 메스를 가하여 선의의 경쟁을 통해 유능하고 농업인에게 봉사하는 사람이 간부공무원이 되도록 획기적 전환을 하였다.



기획력평가는 청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해 중견관리자로서 갖추어야 할 보고서 작성 및 기획력과 문제인식·해결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며, 인터뷰평가는 승진심사

대상자가 작성한 업무추진실적 기술서를 토대로 대외 커뮤니케이션과 설득력을 평가하고, 외부위원이 출제 및 평가토록 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에 승진심사제도를 개선하게 된 것은 농업인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일류부처로 거듭나고자 조직 경쟁력의 관건인 중견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한 인력을 과감히 발탁하여 조직에 새로운 긴장과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첫번째 역량평가는 오는 5월 하순경에 할 예정이며, 이번 주에 기획력 평가의 출제유형과 작성요령, 인터뷰 평가방법 등을 직원들에게 알리기로 하였으며, 시험은 별도의 시험에 대비하는 노력 없이도 평소 업무와 농업에 대한 문제의식, 고민을 하고 일을 열심히 해온 사람이면 누구나 큰 어려움 없이 무난히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다.

앞으로 농촌진흥청은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실적과 능력위주의 인사관리를 확립하고 개인과 조직에 대한 엄정한 평가제도를 정착시켜, 세계수준의 선진농업연구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인사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장 전영춘
• 문의 ☎031-299-2460

